

SPORTS

# P&P

SPORTS PEOPLE & PLAYER

# 10

OCTOBER  
2015

■ INTERVIEW

배드민턴 샷별, 금빛 나래를 펼치다

- 수원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 -



# 배드민턴 샷별, 금빛 나라를 펼치다.

## 수원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

짧은 머리와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임하고 있는 7명 남짓의 여자아이들.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곳은 수원 만석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다. 서로 짝을 이루어 10분씩 돌아가며 토스와 스매싱을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은 시종일관 제법 진지한 표정이었다.

국제대회에서 맥이 끊겨버린 성적과 선수 수급 문제 등 다소 침체를 겪었던 여자 배드민턴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에

힘입어 창단한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 창단 이후 꾸준히 여자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대회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 여자 배드민턴 선수 수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최근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어린 선수들의 힘은 순백의 캔버스 같은 마음속에 자신감과 꿈을 불어넣어 주는 지도자의 역할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1. 수원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
2. 수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입구

4년째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체계적인 배드민턴 유망주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송윤미 코치를 만나봤다.

## INTERVIEW

**K** :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에는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 : 총 7명으로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2명으로 구성된 여자배드민턴 팀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프로선수의 꿈을 꾸고 있는 팀이에요. 저희 배드민턴부는 창단한 지는 11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4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송윤미 코치



**K** :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자 배드민턴부를 꾸준히 유지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알아보니 그동안의 수상 내역이 꽤 되던데 자랑 한 말씀 해주세요.

**송** : 저희 팀의 장점이자 단점이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주목받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실력이 균일한 편이라서 단체전 시합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하위팀으로 분류됐었는데, 작년과 올해에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전국대회 단체전 3위를 했고, 최근에 우리 학교 2학년 선수인 정민 학생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주니어선수권 15세 이하 부문에서 복식 3위를 거뒀어요.

**K** : 국제 대회에 다녀온 아이들은 다녀오고 나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송** : 아무래도 자신감이 이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국에서 8명을 선발하는 대표팀에 선발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성적까지 거두고 왔잖아요. 국내대회랑 국제대회는 엄연히 실력이나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앞으로 국내대회에 참가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K** :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들이다 보니 실력이나 성적이 우선시 되겠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모인 팀인데 지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송** : 저희 아이들은 팀워크가 좋은 편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후배 관계가 있기 마련인 데도 아이들끼리 조화가 잘 되고 특별히 모난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치고 보살피는 부분에서 힘든 점은 전혀 없어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들어갈 여자 고등학교 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다행히도 수원 내에서 유소년 배드민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쯤이면 고등학교팀이 창단될 예정이에요. 집에서 관리받으면서 운동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K** : 그렇다면 유소년 배드민턴팀의 지도자로서 더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송** : 바라는 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지금 지역에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어가는 흐름이 보여요. 초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거의 포화상태이기도 하고 많은 분의 지원이 있어서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게 돼서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껴요.

**K :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 선수 생활을 하셨고 후배들을 지도한다는 느낌이 클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길 바라시는지?**

송 : 무엇보다 성실한 선수가 된다면 좋겠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이들은 지금 학생의 역할보다는 선수 생활에 치중하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죠. 인성이 바른 선수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K : 앞으로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가 가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 : 아직까진 아이들이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강인하지 못한 면이 많이 보여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동계훈련을 철저하게 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입니다.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선수 개개인이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에서 눈에 띌 수 있다면 좋겠어요.



**명인중학교 여자 배드민턴부 수상 내역**

- 2006년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중학부 단체1위
- 2010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중학부 단체3위
- 2012년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중학부 단체3위
- 2012년 제55회 전국어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중학부 혼합복식1위(이다솜)
- 2012년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2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초·중·고) 중학부 혼합복식3위(이다솜)
- 2014년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중학부 단체2위
- 2014년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4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중학부 혼합복식2위(강민희)
- 2014년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4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중학부 혼합복식3위(김아영)
- 2015년 제58회 전국어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중학부 혼합복식3위(이소율)
- 2015년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5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중학부 단체3위
- 2015년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5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중학부 혼합복식2위(강민희)
- 2015년 2015 전국가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중·고) 여자중학부 단체3위
- 2015년 2015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U-15/U-17) 여자복식(U-15)3위(정민)

1. 줄 맞춰 나란히 놓여있는 배드민턴 가방 사이로 보이는 깜찍한 인형들.
2. 매일 이어지는 훈련,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림과 양말! 키모니가 찾아가 5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3.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잠시 사진을 찍기 위해 연습이 중단된 사이, 카메라를 들이미니 수줍어하면서도 장난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사춘기 소녀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2학년 정민 학생을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K :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국제대회에 참가했는데 어땠나요?**

정 : 처음에 대표팀에 뽑혔을 때 자신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대표팀이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나가서 못하면 부담이 되니까 어려웠어요.

▶정민 선수

**K : 하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잖아요. 최종 성적은 어땠어요?**

정 : 여자 복식 3위. (웃음)

**K : 쟁쟁한 선수들을 꺾었으니 그만하면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다녀오고 나서 오늘 훈련해보니 어땠어요?**

정 : 예전보다 훈련하는 게 나아진 것 같아요. 더 재미가 붙었어요. 대회 최종 결과에서 단식 1등이 태국 선수였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느꼈어요.

**K : 배드민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정 :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특기·적성으로 배드민턴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키가 커서 코치님이 먼저 권유 하셨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딱히 없고 지금까지 선수로 생활하는데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세요.

**K : 단식도 중요하지만, 복식이나 단체전 나갈 때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잘 맞는 파트너가 있다면?**

정 : 지금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운동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올라온 거예요. 같은 학년인 이나원, 김아영 두 친구랑 가장 친해요. 복식으로 같이 연습하고 경기도 나가는데 아영이랑은 특히 오래 지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같이 경기해보면 아영이는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웃음)

**K : 지금 프로 무대에 선 여자 선수 중에서 본보기로 삼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정 : 성지현 선수 제일 좋아해요. 근데 아직 큰 꿈은 어려워요. 배드민턴 계속하는 게 가끔은 힘들긴 한데, 앞으로 실력을 올려서 주니어 선수가 되는 게 우선 목표예요.

흔히들 어린 나이에 실력을 갖춘 선수를 꿈나무라고 칭한다. 뻣뻣한 나이테가 생기고 단단한 밑동을 갖춘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계절을 겪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막 발돋움 시작한 아이들에게 다가올 이번 겨울은 매섭고 혹독한 시기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 배드민턴은 그저 하고 있으면 즐거운 것이다. 즐거운 운동을 계속 하기 위해,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어린 선수들의 앞날을 응원 한다.

**kimony**  
SINCE 1977